노동당 인천시당

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2016. 6. 21(화) 배포 | 6면

담당과: 해당언론사

노동당 인천시당: 032-578-9621 (담당: 사무처장 장시정 010-9084-6806)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촉구와 홍영표 환노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최저임금1만원,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 6월 23일 오전 11시,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동참과 최저임금법 개정 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 -

◯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제대로 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행 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둔 지금,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말들은 무성했지만 실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 가장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해 온 노동당은 지난 5월 26일,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안하고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노동당은 6월 2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교현 당대표의 단식 농성과 무기한 연속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당은 6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정당들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최저임금제에 관한 면담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것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해 달라고 요

청했습니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6월 23일(목) 오전 11시,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사무실(인천지하철 2호선 갈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인천시당 이근선 위원장, 이해림 노동당 부대표, 이인화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 미조직비정규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이 참석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11:00 사회자 여는 말
11:05 최저임금 1만원, 국회의 책임: 이근선(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11:10 최저임금 1만원 구호 제창
11:10 투쟁의 말, 최임위 논의 상황 및 최저임금 1만원 쟁취의 필요성
: 이인화(민주노총인천본부 미조직비정규위원회 위원장)
11:15 최저임금 1만원 구호 제창
11:15 투쟁의 말, 최저임금 1만원 왜 필요한가!
: 이경호(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
11:20 최저임금 1만원 구호 제창
11:20 기자회견문 낭독
11:25 최저임금 1만원 퍼포먼스
11:30 면담요청서 전달

◯ **별첨자료**

1. 면담요청서
2. 기자회견문

[별첨#1. 면담요청 공문]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문서번호: 노동당인천-160623-01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발신: 노동당 인천시당(032-578-9621 | 담당: 사무처장 장시정 010-9084-6806)

수신: 홍영표 의원 사무실(인천 부평구을,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제목] 면담요청

1.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2. 노동당은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 별첨과 같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님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합니다.

4. 가급적 6월27일(월)까지 면담이 성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별첨: 면담 요청서
* 면담 일정 협의: 노동당 기획조정실(02-6004-2013, 010-2966-5752)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대표 이근선

[면담 요청서]

최저임금1만원,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면담 요청서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제대로 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행 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정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해 온 노동당은 지난 5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과 같이 명확하게 하여 최저임금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규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개정 첫해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삶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 1만 원입니다.

노동당은 지난 6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에 맞춰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협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홍영표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합니다.

최저임금1만원. 정치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의 밥그릇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근선

[별첨#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다. 이윤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낮추려는 재계 위원들은 매년 손익계산을 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고 공익위원들은 협상이라는 허울로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어디에도 국민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국회 앞에서 6,030원 수준의 삶을 강요당하는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1만원을 강력히 호소하며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와 당원들도 6월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온통 나쁜 일자리 천지인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시급 1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하다. 내수가 꽉 막혀 상인들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1만원은 시대의 요구이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최저임금1만원을 선택했다. 대다수 야당들은 시급1만원을, 여당은 대폭 인상을 약속했다. 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났고 국회가 개원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지금, 30년째 똑같이 공익위원들이 100원짜리 시혜를 선사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둔 지금,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말들은 무성했으나 실천은 보이지 않고 있고, 세종시의 최저임금위원에서 예년 같은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온 최저임금은 실제 삶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미 삶에 필요한 비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하루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은 눈앞이 암담하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다.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무엇보다 국회의 책임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과 같이 명확하게 하여 최저임금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규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실제 삶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 1만원이다.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100원짜리 시혜로 국민들을 좌절에 빠뜨리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

되는 최저임금을 밀실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더욱 안정된 국민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제는 대세가 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6월 23일
최저임금 1만원,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